

박용성씨, 대한체육회장 당선

총 50표중 26표 획득, 과반수 득표



국제스포츠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박용성(69)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앞으로 4년간 한국스포츠를 이끌어 갈 체육계 수장에 올랐다.

박용성 전 IOC 위원은 19일 세라톤위커피 호텔에서 열린 제37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50표 중 26표를 획득, 과반수의 지지를 얻으며 신임 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용성 회장은 또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총회에서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추대될 예정이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스포츠를 대표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다인 8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경력과 조직력에서 가장 앞선 박용성 회장을 나머지 후보들의 집중한 견제를 받기도 했지만 투표권을 가진 가맹경기단체 대의원들이 지지를 보낸 셈이다.

지난 2002년 제34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어 두 번째 출마한 박상하(64) 후보는

12표에 그쳤고 이상철(67) 후보는 5표에 머물렀다.

또 정치인 출신이자 대한인라인롤러연맹 회장인 유준상(67) 후보는 4표, 장주호(72), 장경우(67) 후보는 각각 1표, 박종오(61) 후보는 무득표에 그쳤다. 기호 7번이었던 최만립(75) 후보는 정경 발표를 통해 후보직을 사퇴했다.

박용성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3년 2월 까지이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 박 회장 인터뷰

“공약 이행...1년 후 평가받겠다”

제37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박용성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19일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약속대로 체육회를 제대로 쟁긴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용성 신임 회장은 이날 광주 광진구 광장동 세라톤그랜드위커피호텔에서 열린 선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의원들이 절반을 딱 1표 넘겨 절묘하게 26표를 던진 것은 잘하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회장과 일일인터뷰.

-박 회장의 삼근기능 여부에 대한 지적이 많다.

▲대한상공회의소장 시절 5년간 아침에 출퇴근을 그곳에서 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다. 다만 통신수단이 발달됐는데 꼭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다. 도서관에 오래 앉아있는 학생이 꼭 공부를 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년 이맘때쯤 약속대로 제대로 체육회를 쟁긴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도록 하겠다.

-체육선진화와 체육단체간 구조조정 등에 대한 기본입장은.

▲체육선진화 방안은 이연택 전 회장이 제시한 큰 방향에 거의 다 동의한다. 다만 세 생각을 엮을 것이 있으면 좋겠다.

재정문제는 현 재원은 그대로 확보하되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 재정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선거 기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유 장관은 평창에서 열린 동계전국체전에서 만났다. 후보들의 비난 중 하나가 정부로부터 낙점받아 나온 후보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저도 허물이 많다. 3년전 특정 사건에 연루돼 고생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체육과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정부와 IOC에서도 사면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본다.

■ 박 회장 당면과제는

체육계 통합·스포츠 외교 강화

19일 대의원들의 지지속에 체육계 수장에 오른 박용성(69) 신임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그만큼 많은 상황이다.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총본산인 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완전통합, 정부와 관계 재정립, 스포츠외교력 강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체육단체 대통합=체육단체 구조조정 정은 가장 해묵은 숙제다.

체육회는 지난 2004년 정부를 설득해 KOC와 완전 통합해 대한올림픽체육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이 체육회와 KOC를 분리하는 방안을 발의해 두 가지 안이 계류하다 17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잠잠하던 구조조정안은 지난 해 정부가 다시 체육회와 KOC를 분리한다

는 내부 방침을 세워 심각한 과정이 있었고 체육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체 분리 여부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나 논란이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체육회-KOC 분리 통합 방안은 재논의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기에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관치체육에서 자율체육으로=한국 사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민주화로 나아갔지만 체육행정은 관치체육으로 오히려 후퇴했다.

대한체육회는 당초 사단법인이었지만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변신했다.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체육회가 문화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매년 되풀이되는 소모적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다.

◇자립적인 재정 확보=체육회가 베이징올림픽을 치른 지난 해 총 예산은 1천400억원이었지만 자체 수입은 128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예산의 90%가 넘는 1천200억 원 이상을 국고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존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돈을 쥐고 있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체육회는 재정자립을 위해 국고보조보다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자체 수익구조를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홍명보, U-20 축구대표 감독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40) 전 베이징올림픽 축구대표팀 코치가 청소년 대표팀 사령탑으로 본격적인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광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기술위원회를 열고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을 지휘해왔던 조동현 감독의 후임으로 홍명보 전 코치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홍명보 신임 감독은 오는 9월 이집트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지휘하며 다음 달 이집트 초청경기 때 감독 데뷔전을 치른다. 조동현 축구협회장은 U-20 대표팀을 올림픽대표팀 상비군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에서 홍명보 감독이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지휘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어린 선수들과 시간을 보내며 댕치기 기쁘다. 항상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조직적이고 공간을 활용하는 축구, 영리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축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명보 감독은 1990년대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슈퍼스타 출신이다.

광장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축구를 시작한 그는 미국프로축구(MLS) LA 갤럭시에서



서 은퇴한 2004년까지 25년 동안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한국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를 맡으면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4회 연속 월드컵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에선 ‘히딩크호’의 주장을 맡아 대표팀 선수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4강 진출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 한일 월드컵 때 스페인과 8강 승부차기에서 역사적인 4강 진출을 확정하는 골을 넣은 뒤 양팔을 벌려 환호하던 장면은 축구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10 세계장애인탁구 실사단 광주 방문

23일까지 염주체육관 등 둘러 봐

2010년 광주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제탁구연맹(ITTFD)실사단이 19일 광주를 방문했다.

실사단 3명 중 오빈 에릭슨(54·노르웨이) 국제장애인탁구연맹회장·니코 버스필트(65·벨기에)국제장애인탁구연맹부회장 등 2명이 이날 오후 3시30분 광주공항에 도착, 광주시장애인탁구협회 직원·선수 등 50

여명의 환영을 받으며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23일까지 5일간 머무를 실사단은 염주종합체육관·빛고을체육관 등 경기장과 숙박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돌아볼 계획이다.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장애인스포츠 단일 종목으로선 최대 규모이다. 대회는 내년 10월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상화·이강석 빙속 2연패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전문 이상화(한국체대)와 이강석(한국체대 대학원·의정부시청)이 2009 동계유니버시아드 남녀 500m에서 나란히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상화는 1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빙상장에서 치러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76초36의 대회 신기록으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또 남자부 500m에 나선 이강석은 1차 레이스에서 35초00으로 중국의 유펑봉(34초98)에게 선두를 내줬지만 2차 레이스에서 34초82로 1위를 차지하면서 합계 69초82을 기록, 유펑봉(69초87)을 0.05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퇴장’ 이영표, 2경기 출장정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처음으로 레드카드를 받았던 이영표(32·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두 경기에만 뛠 수 없게 됐다.

도르트문트는 19일(한국시간)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팀이 수비수 이영표 없이 두 경기를 치른다”고 전했다.

박지성 시즌 첫 도움 맨유, 풀럼에 3-0 완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2008-2009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에서 1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 갔고 ‘산소 탱크’ 박지성(28)은 오랜만에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팀 승리를 거들었다.

맨유는 19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치러진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전반 11분 폴 스콜스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웨인 루니의 연속 추가골에 힘입어 풀럼을 3-0으로 완파했다.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 타임을 소화한 박지성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

며 볼 배급 역할을 맡았지만 정작 기대했던 시즌 2호골을 터뜨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박지성은 후반 18분 루니의 추가 골을 어시스트하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지난해 9월25일 첼시전에서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한 박지성이 다섯 달여 만에 올린 공격포인트, 시즌 1호 도움이다.



스포츠동계

20일(금)

- ▲PGA 노던 트러스트 오픈 1R(05:00·SBS골프·SBS스포츠)
- ▲대학장사씨름 최강전 단체전(13:00·MBC ESPN)
- ▲광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 (14:10·KBS1)
- ▲여자프로농구 <금호생명·신세계> (16:50·SBS스포츠)
- ▲프로농구 <삼성·KTF>(18:50·MBC ESPN), <KT&G·모비스>(18:50·SBS스포츠·XPORTS)

남성 힘의 원천

최신제품 100% 천연 성분 함유

- ▶ 남성력 증진 효능
- ▶ 남성력 강화 효능
- ▶ 남성력 유지 효능

010-3598-7080

중고자동차 전자중매

매입·판매

신뢰할만한 서비스

02-483-7586

남성력 원천

최신제품 100% 천연 성분 함유

02-483-7586

남성력 원천

최신제품 100% 천연 성분 함유

02-483-7586